

#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장미숙\*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현대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전반에서 기존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는 획일화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성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메이크업 표현의 무제한적인 허용은 추를 미의 범주로 끌어들이면서 불완전, 미완성의 미를 이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격상시켰으며, 이러한 실험성과 극단성, 전위성이 주는 충격효과는 과히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나토 포지올리(R. Poggioli)의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아방가르드와 네오아방가르드의 개념과 전개과정,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메이크업의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메이크업이 제시해오고 있는 실험성과 전위성의 의미를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 일반에 대한 부정의 정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전통적인 제도예술을 부정하고, 다양한 미적형식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조형질서와 새로운 미적가치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인 예술운동으로서, 여기에는 큐비즘(Cubism), 이탈리아 미래파(Futurism), 독일 표현주의(Expressionism),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 등이 포함된다.

아방가르드는 제도예술에 반대하기 위해 예술과 현실의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몽타주(montage), 우연, 추상, 자동기술법 등의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충격효과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난해하고 고상한 비대중적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다시 그 자체가 제도예술로 편입되는 모순을 자아내었다. 뷔르거(Bürger)는 이러한 편입과정에서 네오아방가르드의 동장을 지적하고 있는데, 네오아방가르드는 생활실천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겠다는 아방가르드의 의도를 부정하면서 유치하고 통속적인 대중적 소재를 이용하여 제도예술 속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율적 예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보급된 네오다다이즘(Neodadaism)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네오아방가르드 예술은 1960~70년대에 이르러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술이 현실과의 접목을 시도하였고, 대중문화의 대용물로서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팝아트(Pop-Art), 옵아트(Op-Art), 누보리얼리즘(Nouveau Realism), 테크놀로지 아

트(Technology Art), 그리고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앵포르멜(Informal)로 불리는 행위예술 등으로 진행되었다.

오늘날 다원주의, 수정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양상들에서 보여지는 전통의 부활, 대중문화·비주류문화의 수용, 그리고 그것이 결과하는 절충주의(eclecticism) 등은 아방가르드 정신과 수법에 의존하면서도 그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패러디(parody)화한다는 점에서 네오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다.

포지올리는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행동주의, 적대주의, 비대중주의, 반과거주의, 미래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실험주의, 우모리즈모(umorismo), 비인간성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역사성, 퇴폐성, 해학성, 비인간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아방가르드는 과거의 문화예술 전통에서 스스로의 전례를 찾고자 하지 않는 현상이며, 그만큼 아방가르드는 당대의 예술경험에 대해 역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아방가르드도 역시 '반전통적'이라는 면에서 모든 예술적 전통처럼 자체의 관습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 표면에 드러나는 역할과 기능은 반관습적인 경향에 의해 이루어지나 아방가르드 예술의 관습이 전통적 관습에 대한 역설관계에 의해 엄격하고 직접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방가르드의 관습들이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극히 규칙적이고 규범적이어서, 하나의 뚜렷한 표준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의 특성은 재생(再生)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귀, 즉 자발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원초적인 것, 역사에로의 복귀이다. 또한 생활예술 속에서 아방가르드가 사용했던 기법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며 제도화된 전위성과 실험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의 반과거주의적 양상은 과거나 전통으로의 회귀, 회복을 통한 네오아방가르드의 역사성으로 전환된다.

아방가르드의 퇴폐주의는 당대 문화의 위기를 반영하는 극단화 현상으로, 이탈리아의 비평가 마시모 본템펠리(Massimo Bontempelli)는 이러한 퇴폐주의가 당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방가르드의 일반적인 사명과 기능을 새로운 하나의 연속으로 여는 것 또는 적어도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다. 세기의 전환과 밀레니움(millennium)의 전환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문화·예술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네오아방가르드의 퇴폐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연속선상으로 파악된다.

아방가르드의 우모리즈모는 유머, 익살, 해학, 풍자, 어릿광대극의 의미를 갖고 있다. 루이지 피란델로(Luigi Pirandello)는 일반적 웃음에서 더 나아가 연민과 동정이 담긴 웃음을 우모리즈모가 추구하는 웃음의 형태로 보았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대조의 감정과 성찰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우모리즈모의 원리이다.

네오아방가르드는 전통적인 소재를 패러디화하거나 천박하고 속물스러운 것으로 매도되는 통속적인 이미지 키치(Kitsch)를 도입하여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고, 긴장의 감작스런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띠고 있다.

아방가르드의 또 하나의 특성인 기술주의, 기계주의, 과학주의의 비인간성은 현대 예술(Modern Art)이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미래에 대한 신념, 진보와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인상파가 빛을 탐구한 이후

로 입체파의 기하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구성주의, 미래주의의 기술공학적 시각, 바우하우스(Bauhaus), 그리고 다다리스트(Dadaist)들의 도해화(圖解化)된 기계들, 프로이트(Freud)적인 꿈의 초현실주의적 시각화와 심리분석 과정의 추상표현주의 등이 그 예이다. 요한 호이징하(Johann Huizinga)는 이러한 현대 예술의 특징을 가리켜 하나의 특이한 “분열과 비인간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예술의 비인간화를 통한 인간성의 강조는 네오아방가르드 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이크업에서의 역사성은 초기의 전통형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바탕으로 모방·과장·변형을 통하여 희극적 효과를 연출하는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가부키(歌舞伎, Kabuki) 메이크업과 중국의 경극(京劇, Pecking Opera) 메이크업, 아프리카의 원시가면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은 얼굴 피부 전체를 하얀색으로 칠하고, 크기를 축소하여 빨간 입술을 그리는 형태로, 비속적이고 그로테스크하며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은 여역(女役)중 화단(花旦)의 메이크업으로, 얼굴 피부 전체를 밝은 핑크톤으로 화장한 후 눈앞머리에서부터 볼 부위를 전체적으로 붉게 그라데이션시켜 화려한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이는 상당히 인위적이고 과장된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U)으로서, 그 자체가 두꺼운 베이스(base)를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통한 강한 이미지의 부가, 메이크업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아프리카의 원시가면 메이크업은 내면의 사상들이 가면의 외양을 이루는 비사실적인 형태 묘사, 유희적이고 도식화된 기법, 추상적이고 평면적이며 초현실적인 도상 표현과 종교관에 관련되어 절제된 색감들로 나타났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소수, 하위집단, 추의 속성을 대표하는 흑인문화가 격상되어 하이패션에 진입한 아프리카의 토속성과 원시성을 엿볼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퇴폐성은 주로 자연스러운 인체에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을 하거나, 성적으로 노골화함으로써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타투 메이크업(Tattoo M/U)과 스노비즘 메이크업(Snobism M/U)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오늘날 캣워크에서의 타투 메이크업은 타투의 퇴폐성과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메이크업이나 바디 페인팅을 통하여 세기말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노비즘 메이크업은 인조 손톱과 인조 속눈썹 등 인위적이고 과장된 장식을 통하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자기과시, 도시적인 세련미, 인공미를 지나치게 좇는 속물주의(俗物主義) 메이크업을 말한다. 인조 손톱과 인조 속눈썹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메이크업 아이템이지만, 최근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훨씬 더 장식적이고 길어도 길어져 극도의 에로틱함과 퇴폐성을 띄며 패션쇼의 분위기를 한층 심화시킨다.

메이크업에서의 해학성은 성인 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가슴설레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사회적 해방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권태로운 도시의 일상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해방의 욕구가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해학성을 캐릭터 메이크업(Character M/U)과 키치 메이크업(Kitsch

M/U)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캐릭터 메이크업은 인형극, 만화, 동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동물의 모습과 이미지를 모방하는 메이크업으로, 이를 통하여 현실세계의 지루하고 경직된 한계성을 비판하고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지로 해학성을 표현한다. 키치 메이크업은 고상하고 품위있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성을 통해 저속한 이미지 또는 촌스럽고 유치한 이미지로 웃음을 자아내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현대인들의 권태를 반영하듯 값싼 모조품, 기성품, 그리고 비예술적이고 일상적인 소재인 키치 오브제를 직접 사용하거나 유치함과 통속성의 키치 이미지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비인간성은 비인간화의 원리인 '변형(deformation)'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것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극화를 통해 더욱 인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충격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메이크업의 비인간성을 그래픽 메이크업(Graphic M/U)과 뱀파이어 메이크업(Vampire M/U)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래픽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서 인간성을 무시하고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그래픽적 요소, 즉 직선, 사선, 원, 삼각, 사각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서부터 색채배색과 모티브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이며, 뱀파이어 메이크업은 괴이취미, 이국풍정, 악마주의, 유태주의 경향을 보이는 세기말적 현상의 하나로, 검정색·빨강색 등 강렬한 원색의 메이크업과 뱀파이어 패션이 조화를 이루어 공포, 괴기, 신비로움을 연출하는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메이크업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적 경향은 탈장르, 해체, 혼성모방 등으로 묘사되는 소비사회의 병적정후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맥락으로서, 메이크업에서도 미적가치의 다원성과 주관적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창의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부각으로 패션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주로 전위적인 패션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패션과는 결코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는 상호보조적 관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롭고 파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중과 크리에이터들의 무한한 표현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 메이크업에서의 아방가르드적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사료된다.